

François BUGNION : *Gustave Moynier 1826-1910*

Traduction dirigée par Eun-Bum CHOE

Séoul, décembre 2011, 106 pages

Edition par l'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cademy et la Croix-Rouge de Corée

Collection Henry Dunant, n° 33, ISBN 978-89-91546-24-0

귀 스타브 므와니에는 실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앙리 뒤낭이 「솔페리노의 회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창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므와니에는 적십자의 설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1864년 8월 22일에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현대 국제인도법의 출발점으로 대부분이 그의 펜 끝에서 나왔다. 므와니에는 1864년부터 1910년까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총재로 재임하면서 위원회의 정책적인 기본틀과 함께 업무의 근간이 되는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국제법학회의 창립자 중 한 명이며 국제형사재판 체계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와니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이름은 곧 잊혀졌다.

단순하고 직설적인 문체로 쓰여진 이 짧은 전기는 귀스타브 므와니에의 일생과 주요 활동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인간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가 남긴 유산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프랑스와 브뤼셀은 인문학 학사학위 취득 후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0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는 ICRC의 본부와 현장에서 모두 근무했으며,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ICRC의 국제법 및 협력분야 책임자로 재직했다. 또한 국제인도법 및 적십자와 적신월사 운동의 역사에 대해 5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으며 2010년 5월부터는 ICRC총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대한적십자사 

Cette biographie est vendue avec celle d'*Henry Dunant, 1828-1910* par Roger DURAND.

Le set de ces deux volumes coûte 19.– francs ou 15.– francs pour les membres de *Genève humanitaire* et de la *Société Henry Dunant*.